

# 착한 아들

The Good Son

누가복음 15:11-3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2월 15일 설교

<sup>11</sup>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sup>12</sup>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둘 아홉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sup>13</sup>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sup>14</sup>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sup>15</sup>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sup>16</sup>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sup>17</sup>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sup>18</sup>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sup>19</sup>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sup>20</sup>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sup>21</sup>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sup>22</sup>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sup>23</sup>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sup>24</sup>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sup>25</sup>말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sup>26</sup>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sup>27</sup>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sup>28</sup>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sup>29</sup>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sup>30</sup>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sup>31</sup>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sup>32</sup>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 두 아들의 비유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짜임새가 있습니다. 보통 소설이나 희곡의 뼈대를 이루는 다섯 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있습니다. 길이를 박서는 긴 소설 하나를 요약한 것 같은데 내용을 읽어보면 요약문이 아니라 소설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비유가 다 그렇지만 이 본문도 말씀의 은혜 뿐 아니라 이야기라는 장르가 주는 감동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소재로 한 그림도 많고 또 성탄절에 이 비유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도 많이들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통 뭐라 부릅니까? ‘탕자의 비유’라 부르지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가 본문의 2/3 정도 되긴 하지만 사실 탕자가 진짜 주인공은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보다 아버지가 이야기의 중심이고 탕자의 형도 동생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도 위기, 절정을 거쳐 결말이 났다 싶은 순간 다시 위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주도하긴 하지만 삼부자의 비유라 하긴 좀 어색하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뜻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제목은 ‘두 아들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탕자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집입니다. 어머니는 이야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에 아들만 둘 있는 집입니다. 재산도 많고 머슴도 많이 거느린 걸 보아 어마어마한 부잣집입니다. 한 집안 이야기인데 가만 들여보면 공감미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까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에 든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집에서도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하나로 주님은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 집 나간 아들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께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아들이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왜 작은아들이 떠났습니까? 유대인 문화에서 상속의 중심은 언제나 맏아들입니다. 집도 물려받지만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도 맏아들이 인계받습니다. 그러니 작은아들은 집에 남아 있어 봐야 어른 노릇은 못 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먼 나라니까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는 방식이나 원리도 다른 곳입니다. 또 집하고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재산을 허비합니다. 부잣집 아들이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자랐겠지요. 펍펍 씩니다. 돈이라는 게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뿌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빌어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겨우 취직자리라고 구한 게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 하면 우리는 삼겹살부터 생각납니다만 돼지는 유대인이 가장 더럽게 치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데 월급도 없습니다. 그저 잠 하나 재워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만 해도 더러운데 아예 내가 돼지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한 형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음식마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처럼 돼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그마저 안 됩니다. 이제 이대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아들의 회개

그런데 이대로 죽자니 아쉽습니다. 왜요? 안 죽을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집을 나왔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긴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한지 머슴들조차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 대단한 부잣집에서 나는 머슴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방법은 꼭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재산 다 챙겨 영영 작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집으로 어떻게 다시 가겠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이대로 죽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니까? 취직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참 야비하지요?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머슴으로 써 달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살림 챙겨 집을 떠난 그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잘못에 대한 벌도 기꺼이 받기로 했습니다. 부자의 연을 끊었으니 다시 아들로 받아 달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슴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 죄를 알고 그 대가를 기꺼이 받겠다 하는 이걸 뭐라 부릅니까? 회개라 하지요. 작은아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 거룩한 기회주의

회개를 하게 된 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굶어죽을 형편이 되니까 잘못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런 태도를 무슨 주의라 했지요? 기회주의입니다. 아무 원칙도 없이 그저 그 순간에 유익한 쪽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기회주의인데 내 재산 받았을 때는 독립하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갔고 재산 탕진해 굶어죽을 위기가 오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회주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게 봅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탕자의 경우에도 주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다. 외국에 가서 돈을 펍펍 쓰게 만드셨지요. 그렇게 해서 알거지가 된 그 때 온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먹고살 거리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도 안 생기지요. 주님이 이야기에서 작은아들의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신 이유가 뭐니까? 안 그러면 안 돌아올 거니까, 웬만해서는 그 나라에 눌러앉아 살려고 할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유가 뭐든, 계기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안 따지십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일부러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은혜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집을 나간 아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느 날 밤에 집으로 몰래 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밤중인데도 집 대문이 조금 열려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집나간 아들이 밤에 돌아왔다가 문이 잠겨 그냥 가버릴까 봐 부모는 아들이 가출한 그날부터 한 번도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아버지의 기쁨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 한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아버지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며 부자의 연을 끊었지만 아버지한테는 변함없는 아들입니다. 돌아온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돼지를 먹이다 왔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겠지요? 돼지 음식도 못 얻어먹어 굶다 왔습니다.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이제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한 마디를 더 해야지요? “머슴으로 써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끊습니다. “게 누구 없느냐?”

종들을 불러 지시를 내립니다. 너는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오너라. 너는 가서 가락지하고 신발을 갖고 오너라. 가장 좋은 옷은 아들에게만 입히는 옷입니다. 가락지는 내 아들, 그러니까 집안의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신발도 주인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 자격이 없다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전히 아들입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와 준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종에게는 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왜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잃었다 찾은 기쁨이지요. 그냥 하나가 비었다가 그 자리가 다시 채워진 게 아닙니다. 잃었다 찾은 기쁨은 말 그대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기쁨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로웠는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그 괴로움보다 훨씬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집안사람 다 모아 잔치도 합니다.

## 말아들의 불만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면 이걸로 끝이겠지요. 아들의 가출로 불행해졌던 집안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행복을 되찾았다 는 내용입니다. 기승전결을 잘 갖춘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걸로 끝이 안 나고 새 국면으로 접어들다. 온 집안에 고기 굽는 냄새, 요리하는 냄새가 풍기고 풍악도 울립니다. 춤도 추면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는데 누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말아들입니다. 말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아무리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도 그렇지 잔치를 하려면 적어도 말아들은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들 하나는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만 모아 잔치부터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 기서 주님은 다시 한 번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말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아들이 죽었다 살아나 특별해진 겁니다. 잃었다 찾은 기쁨이 그렇게나 크더라 는 말씀입니다.

집 가까이 온 말아들이 소리를 듣고는 안 들어오고 종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소리냐? 안 들어오고 물은 것을 보니 무슨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들 둘이 있다가 하나가 집을 나갔는데 그 날 이후 아버지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집안에 즐거움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 나간 아들 생각만 합니다. 말아들이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말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 가고 종을 불러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동생이 돌아왔다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기쁜 나머지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재산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반겨 맞았답니다. 서운한 일이지요? 게다가 저는 밭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이 잔치가 벌어졌으니 그것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집엘 왜 안 들어갑니까? 동생이 있어 안 들어갑니다. 네가 집에 온 걸 나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이지요.

## 아버지의 설득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저는 몇 해 동안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전 재산을 창녀에게 허비한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입니다. 동생이 아버지 속을 썩이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접은 오히려 동생이 받았습니니다. 일을 거꾸로 해도 이걸 너무 심한 경우 아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애야, 너는 나하고 늘 같이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니?” 너는 늘 같이 있었으니 잔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렇게 잔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비유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탕자 부분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아주 깔끔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형이 등장한 뒤로는 위기만 있고 절정도 결말도 없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에도 별로 안 나오고 교회에서 연극을 할 때도 대부분 생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는 끝납니다. 맏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말도 없고 화를 버럭 내고 가출해 버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못 깨닫느냐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 맏아들의 문제

형의 불만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출을 했으니 동생은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갖고 가 방탕한 일에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 고생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저는 불효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집안 살림을 잘 꾸려 왔습니다.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아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거꾸로 하셨습니다. 벌을 받아야 될 아들에게 푸짐한 상을 주고 상을 받아야 될 내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맏아들은 제가 아버지를 섬겼다 했습니다. 수고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했는데 아버지를 섬긴 건 아니었습니다. 제 말로는 아버지를 섬겼다 했지요? 뭐가 섬기는 겁니까? 종이라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는 그걸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를 즐겁게 해 드려야 그게 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표시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찬물을 끼얹는 걸 보니 수고는 많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뒤로 아버지는 오직 하나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처럼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야 옳습니다. 도저히 동생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런 동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도 섬기면 안 되지요. 그건 내 결정입니다. 아버지를 안 섬겨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섬기기로 했다면 아버지 마음이 첫째입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만큼 기쁘지는 않았다 해도 그렇게 화를 내고 대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 회개의 기회

아버지가 맏아들을 설득하면서 작은아들을 “네 동생”이라 부르면서 이어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맏아들은 동생을 가리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들이니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 동생 삼긴 싫다면 나하고 부자의 연도 끊어야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아들은 동생으로 삼기 싫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이 아들도 탕자입니다. 가출 안 한 탕자, 곧 재택탕자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던 아들은 기뻐 잔치하는 아버지가 싫어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설득하는 순간은 이 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 온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맏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를 끝내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선 하나님의 구원을 저만 차지하고 이방인하고는 나누지 않겠다 한 유대인들을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요나를 통해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돌아오면 좋아 어쩔 줄 몰라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원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신다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에게 울퉁 규정 백 개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나도 본받는 것임을 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 착한 아들

이 비유의 교훈을 간단히 줄이면 착한 아들이 되자는 겁니다. 작은아들은 일단 착한아들 맞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니 착한 아들이 되려면 돌아오기 전에 가출부터 해야 되겠지요?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미 가출한 상태입니다. 말아들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작은아들입니다. 돼지 먹는 음식조차 못 구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착한 아들이 되려면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그냥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효자효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탕자인 줄은 알지만 탕자의 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모릅니다. 재택탕자입니다. 누가 말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말아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내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나는 잘났지요. 하지만 내가 너무 잘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바라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십니다. 바르게 의롭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든 잘못했다 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졌다고 이웃과 나누지 않겠다 하는 마음. 좋은 건 나만 누리겠다 하는 마음도 잘못입니다. 혼자 누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한 줄 착각하는 대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시게 한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게 아버지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아들입니다. (권수경 목사)